

## 6 인터뷰-유튜브 크리에이터 김소정 동문(미디어학 2015)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김 동문의 뜻은 그의 영상들 속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진=김동희 기자)

## ‘회기 알바왕’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까지 “무거운 주제도 가볍게 풀어 전달하고자”

김동희 기자 kdh0626@khu.ac.kr  
박상희 기자 smtg7475@khu.ac.kr

# 온라인 영상 플랫폼 ‘유튜브’는 기성 미디어인 TV를 대체하는 영향력을 지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튜브 시대의 개막과 함께 대중의 웃음 코드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1차원 개그는 시들고 ‘하이퍼리얼리즘’과 ‘부캐’가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부캐란 또 다른 캐릭터라는 의미로, 한 사람이 원래 모습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이에 우리신문은 유튜브 ‘사내부공업’ 채널을 운영하며 이 같은 트렌드에 일조하고 있는 김소정(미디어학 2015) 동문을 만나, 그의 발자취와 현재를 들어봤습니다.

### 숏폼으로 웃음 자아내기까지

김소정 동문이 운영하는 ‘사내부공업’ 채널은 현재 51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 동문이 ‘숏폼’ 콘텐츠에 녹여낸 현실이 많은 이들의 웃음을 자아낸 덕분입니다. 숏폼은 60초 내외 짧은 영상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김 동문이 지금과

같은 영상 콘텐츠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원래 김 동문은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회사인 ‘파괴연구소’에 입사해 화장품 관련 영상의 기획·제작을 담당했습니다. 김 동문은 “뷰티 영상 제작이 적성에 맞지 않다고 느꼈던 즈음 2021년 하반기부터 쇼츠, 릴스 등 숏폼 콘텐츠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며 “숏폼 시장 초기 진입을 위해 예능 부류 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전향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 독창성 있는 콘텐츠 뒤편 우당탕탕 아르바이트 이야기

김 동문의 숏폼 콘텐츠는 대학 시절 무수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김 동문은 자신의 경험을 숏폼이라는 형식에 담아내기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고민과 노력에 응답하듯, 점점 많은 대중이 김 동문의 숏폼 콘텐츠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우당탕탕 알바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된 숏폼 콘텐츠는 많은 사람에게 큰 공감을 얻

었습니다. 김 동문에게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묻자 만화카페, 학원, 과외, 놀이공원 매표소 등 수많은 업종을 한참 동안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김 동문은 대학 시절 친구들과 사이에서 ‘회기동 알바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했다는 김 동문은 “짧고 피 같은 시간을 팔아서 고작 생활비를 벌고 있다는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적도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김 동문은 “고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시간이 지금의 독창성 있는 콘텐츠의 밑거름이 됐다”며 “무수한 아르바이트 경험 덕분에 아직도 할 이야기가 많다”고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 뜨거운 관심을 받은 <다큐 황은정>

대학 시절 김 동문은 아르바이트 외에도 각종 소모임과 워킹홀리데이, 셰어하우스에서 살아보기 등 최대한 많은 일을 경험해보려 노력했습니다. 당시 김 동문을 스쳐 간 다

양한 사람들의 군상은 자연스럽게 삶의 사소한 지식으로 축적됐습니다. 이는 매주 새롭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김 동문의 동력이기도 합니다. 김 동문은 “대학 진학을 취업을 위한 관문으로 여기는 행동은 정말 곤란하다”며 “무엇이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실천하는 자세를 대학 생활의 목표로 삼길 바란다”는 조언을 건넸습니다.

### 다양한 경험이 뜻밖의 자양분이 되기도

숏폼 콘텐츠로 ‘사내부공업’ 채널이 급성장한 이후에도 김 동문은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동문은 2010년을 살아가는 날라리 중학생 ‘황은정’으로 직접 분해 <다큐 황은정> 콘텐츠를 탄생시켰습니다. 김 동문은 시나리오 작성부터 장소 대여, 배우 섭외, 편집까지 모든 영상 제작 과정에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4편의 영상은 공개 직후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올라서며 뜨거운 관심을 얻었습니다.

김 동문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업무 메일을 받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이러한 바쁨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미소로 답했습니다.

###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나만의 ‘공론장’ 만들고 싶어

이처럼 숏폼 콘텐츠와 장편 영상을 모두 성공시키며 콘텐츠 제작자로서 입지를 다진 김 동문이지만, 처음부터 콘텐츠 제작자의 꿈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 동문은 고등학교 시절 여러 사회 문제에 비판 의식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기사를 꿈꿨던 김 동문은 영상기자 인턴을 하기도 했지만, 이는 오히려 기자가 적성에 맞지 않음을 확실히 알게 된 계기였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김 동문의 뜻은 그의 영상들 속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상경한 대학생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김혜진’ 캐릭터 역시 김 동문의 경험과 생각이 투영된 인물입니다. 김 동문은 “김혜진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상들에서 많은 사람이 공감과 위로를 나누는 공론장이 열리는 것을 봤다”며 뿌듯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어 김 동문은 “청년 주거 문제와 같이 다소 무거운 주제들을 가볍게 풀어낸 영상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